

총회장 조남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장에 ... 바른복음 전파 총력 다짐



총회장 조남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65차 총회 총회장 조남영 목사(가평 순복음교회)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6월 2일(목) 오전 11시 가평군 가평읍 새마을로 가평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져 한국교회에 깊숙히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를 비롯 그릇된 이단사이비를 몰아내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가평순복음교회 성가대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요 6:65-6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영생과 천국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화유나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성경에 입각한 교리가 중요하다. 진실한 복음사역자는 사역을 추구하여 앞뒤가 다른 말로 복음을 혼탁하게 하거나 세속적인 이합집산을 예사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며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축사 경정총회장 임종달 목사



축사 직전총회장 정동용 목사



대표기도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



사회 총무 최형택 목사



헌금기도 경기중앙지방회장 임종택 목사

바른 신앙 자세를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하게 성경대로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은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취임에 축하했다.

임종달 목사는 축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굳건히 서신 조남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보배처럼 여기고 큰 기대를 가지며 총회장의 직임을 훌륭히 감당해 내실 것을 믿으며 이를 계기로 교회에도 큰 부흥"이 있기를 축복했다. 경기중앙지방회장 임종택 목사의 헌금기도, 가평순복음교회 위임찬양팀의 헌금찬양, 가평순복음교회 각 기관 대표의 꽃다발증정,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총회장 조남영 목사는 "총회장의 중책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함축어 말했다.

직전총회장 정동용 목사의 축대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한국교회에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과 성원을 다짐하기도 했다.



특시

시인 정문석 //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감격과 순정과 성령으로 살고 있는 목자여

- 총회장 취임 소식을 듣고 이 헌시를 바칩니다 -

가평 산 골짜기에서는
참으로 아까운 목자
가평 산 골짜기
참으로 행복한 교인들

언제인가
쫓겨나 보다
알곡이 넘치고
신도 수는 적지만
성경적인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가평순복음교회
일인 일제자 나무를
푸르게 심어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교하며 전도하는
아아 행복한 참한 교회여

감격이 없는 시대를
순정이 없는 시대를
성령이 없는 시대를
감격과 순정과 성령으로
함께 살고 있는 진정한 목자여
하얀한 참초 마저 나지 않는
허허한
이 쓸쓸한 박도에서
오로지 목가적인 참 목자여

두쪽으로 깨뜨려져도
부수어져도
울지 않는
바위 같은
쇠덩이 같은
큰 소나무 한 그루

처음부터 가평순복음은
우리의 목사 자체였다
오랫동안 가평순복음은
우리의 목사 자체였다
영원히 가평순복음은
우리의 목사 자체이리라

가평순복음교회 시인 정문석 집사 프로필

· 1938년 전남 강진 출생

· 강진농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시 장원
· 고등학교 시절 시집 「요람」 발간
· 시집 「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 「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 대한교과서(주) 위원
· 도서출판 한양 대표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선택’



조용목 목사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20)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과 결정을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정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출생에 관련된 것처럼, 자신의 자유의지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운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매우 막대합니다. 운명적인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지혜롭고 훌륭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경은 생각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잘하면서 생각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기도는 좀 부족해도 생각을 중요 올바르게 가지는 편이 낫습니다. 마음은 방치해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미는 정원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피서 사망과 저주에 속한 생각이 침투하거나 뿌리를 내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생명과 복에 속한 생각을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과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것은 오염된 생각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방법일 뿐 아니라 생명과 복에 속한 생각을 심고 지리 잡게 하는 데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둘째,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말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말에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말에는 생명과 복에 속한 것과 사망과 저주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

자가 오늘 어디에 속한 생각과 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내일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밭에 심는 것과 같아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복에 관한 말만 선택하여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연습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경건에 속한 연습입니다.

셋째,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 성격의 믿음이 있고 긍정적 성격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증하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에 속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지,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의 일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현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 백성 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매사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은 명확하였고 한결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성경에 기반하고 성경에 합치되는 생각과 말과 믿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혜롭고 훌륭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증해 주십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동성애확산 방지 및 차별금지법 저지

제65차 총회 제2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 제65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6월 14일(화) 오전 11시 새여수순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동성에 쿼어축제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동성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합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홍현철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27:5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서로 만나기만해도 즐겁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총회원들을 기도로 헌신으로 섬기고 참 목자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소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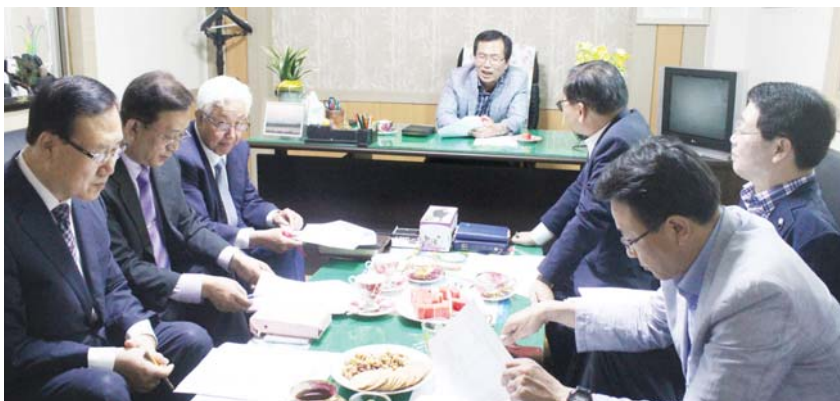
의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

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5차 총회장 조남영 목사 취임예배, 동성에 쿼어축제로 인해 미스비금식기도회 등의 내용들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조원제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이재홍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기금 청원, 교역자복지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건이 보고 결의되었으며 65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이 각각 연임 또는 새로 임명되었다. 농어촌 국장에 오경덕 목사가 평신도국장에 임명된 목사가 새로 임명되었다.

기타사항으로 교육국 주관 종교동부 연합수련회 7월 중 개최, 고시위원회 주관 목사고시위원회 모임, 목대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전국사모연합회 월례회 개최,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2016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 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할랄식품, 한국의 이슬람화 부추기는 것

전국이슬람대책위원회, 이슬람 자본 사용 위험성 경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할랄식품매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이슬람대책위원회(상임대표 최수일, 이하 이슬람대책위)는 5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할랄식품매단지 반대사를 표명했다.

이슬람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농축산식품부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할랄식품 인증까지 지급하면서 한국의 이슬람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할랄식품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청회나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몰아붙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 할랄식품 조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슬람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임에도 정부 부처의 실적 올리는데 급급한 모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강원도가 추진 중인 세계이슬람경제포럼(2017WIEF)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슬람대책위원단운동정형만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06년 창립 이후 非무슬림 세계와의 협력을 명분으로 자본투자를 통하여 이슬람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정형만 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에는 영국이 제9회 WIEF 대회를 유치하면서 23원

의 투자를 받았는데 담보물인 국회의원회관 2개동이 이슬람 사리아법의 적용으로 심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슬람 자본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대책위는 “2017WIEF를 통해 이슬람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강원도에 무슬림 집단거주지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2017년 9월 예정인 2017WIEF 개최 계획을 하루 빨리 포기하고 취소 통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6 라이즈업코리아 킥오프 행사

오는 8월 6일 오후6시, 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

2016 라이즈업 코리아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행사가 지난 5월 31일(화) 오전 7시 40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종환 목사(제주 아름다운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킥오프 행사는 김은호 목사(요로교회)의 인사말, 김관상 사장(CTS 기독교TV)의 격려사, 조영진 목사의 대표기도로 이어졌다.

2016 라이즈업코리아 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김은호 목사는 “라이즈업코리아 대회와 라이즈업무브먼트가 이 시대 청소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보여왔다. 이 대회는 교단이나 교회의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집회가 아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순수한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집회이다. 이번 2016 라이즈업코리아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라이즈업무브먼트 이사장)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토대로 메시지를 전했다.

오 목사는 “라이즈업코리아를 통해 한국교회 밑바닥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킥 오프 행사는 계속해 라이즈업워십랜드의 특별전양 사역 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 이동현 목사(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새로운꿈교회)의 사역 설명이 이어졌다.

이 목사는 “라이즈업무브먼트의 청소년 영성 운동 또한 강력한 영적인 움직임과 운동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와 사회로 확산하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 더 깊은 광장에서 의 기도와 더 넓은 광장에서의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BMC 비전스쿨, ‘일터에서 예배하는 자’ 주제로

한국CBMC(한국기독교실업인회, 이하 CBMC, 중앙회장 두상달)는 지난 9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CBMC 회원 부부를 대상으로 제80기 ‘비전스쿨’을 진행하고 가정회복을 통한 크리스천리더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고민하고 학습하는 비전스쿨은 한국CBMC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2004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현재 제80기를 맞는 비전스쿨은 연 4회 실시하며, 기수별 평균 7~80명 가량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비전스쿨은 새로워진 강사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3~24절 말씀에 근거한 ‘일터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CBMC(리더로서의 정체성 회복, 일터로의 파송을 중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CBMC 홈페이지(www.cbm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및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인 및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CBMC는 오는 8월 17~1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30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제43차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창립 64년째를 맞는 한국CBMC는 전국에 271개 지회와 33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2016 춘계학술대회 개최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과 생명력 회복 위해 노력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학술단체 기독교학문연구회(KACS: 회장 유재봉 성균관대교수)가 주최하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CWSA)가 주관하는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 할 것인가?’란 주제로 학자와 교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8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장현일 박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생명나무교회 목사)는 송태현 박사(기학연 연구부회장)이화여대의 사회로 시작된 ‘기독교학문과 정책개발’이라는 기초 강연에서 “한국교회는 개교주의와 성장지향주의 이분법적 성숙분리를 비롯 기독교의 신앙 등에 몰든 건강치 못한 교회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신학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기독교 학문의 적극적인 사회와 교



회에 대한 봉사를 강화해야 하며, 기독교 학문이 국가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시설 활성화, 통일화합 북한나무심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종교인 과세 문제 등 비롯한 종교평화법 문제점” 등 사례 발표를 통해 국회입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법 지원을 위한 학문적 봉사를 주문했다.

또한 장 박사는 “공공정책의 특정 영역에 관해 연구자 개별적 접근의 한계로는 정책 반영 확률이 더욱 낮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관해 학제적 접근과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공공정책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한국교회가 교단 교회로 초월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변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 폐막

대한성서공회를 성서출판 지원센터로 공식 인준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가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성서공회 설립 2백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로부터 150여 개국의 성서공회에서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를 위한 산 소망’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25세 미만의 청년 인구 증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노령화, 가속화되는 인구 이동, 도시화, 소득 계층 양극화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 세계 종교 지도의 변화 등 변화하는 글로벌 사역 환경을 점검하고, 다음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각 나라 성서공회들이 세계 성서사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번역이 세계



성서운동의 중심축임을 확인하고, 리더십 개발부터 다양한 대상들의 필요에 맞춘 사역 개발에 이르는 여덟 가지 사역 분야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는 필라델피아선언을 의결했다.

이 기간 중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미국성서공회를 성경 말씀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센터, 영국성서공회를 성경 옹호 지원 센터, 독일성서공회를 학문을 성경 지원 센터로 인준했다. 특히 대한성서공회를 출판 영역에 있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사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성서공회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했다.

베텔성서연구원, 베텔성서 지도자강습회 개최

성서편, 자녀교육편으로 전국 순회



베텔성서 지도자 강습회가 오는 6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다.

‘베텔성서연구’ 프로그램은 교단을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계적인 성경교육 과정으로 한국베텔성서연구원(원장 이흥렬 목사)는 1974년부터 40여 년 간 ‘베텔성서연구’ 프로그램(성서편, 생활편, 신앙편, 구원편, 예배편, 자녀교육편)을 통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교육함으로 한국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튼튼한 기반 위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꾸준히

히 섬겨왔다.

지금까지 280여 회의 지도자 강습회를 통하여 45개 교단 1만 6천여 명의 목사님이 베텔성서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47만여 명의 성도들이 베텔성서를 공부했다.

베텔성서 성서편 교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구속사 관점에서 한 눈에 파악하도록 공부하는 과정이다. (구약20과, 신약20과 총 40과)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구분하여 보거나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경이라는

숲을 파악하여 성경의 맥을 잡아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도와준다.

특히 성서의 주요 개념을 각 과별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과 개념카드를 보조 교재로 사용하여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베텔성서지도자강습회 강사진은 △자녀교육편 강사진: 박상진 교수(성모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김영래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기독교 교육학 교수), 박미영 원장(기독교제학교 유치원 원장) △성서편 강사진: 박익일 교수(투터대학교), 박정식 목사(인천 은혜의교회)이며, 강습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27일(월)부터 13일(수) 칠원감리교회 자녀교육편 ▲7월 4일(월)부터 6일(수) 순천 미드리마을(순천 금당남부교회 수양관) 자녀교육편 ▲7월11일(월)부터 13일(수) 대전중앙감리교회 성서편 ▲9월 5일(월)부터 7일(수) 인천 은혜의교회 성서편

제9회 나사렛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6월 4일부터 3일간 2,500여 명 참가

나사렛대(총장 임승안)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남 유관순체육관에서 제9회 나사렛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품새대회’를 개최했다.

나사렛대 총장배 태권도대회는 대전·충

청권 대학 중 유일하게 지난 2014년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공식대회로 승인받은 권위 있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가족 등 3,000여 명이 전남에 찾았다.



나사렛대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성인 부문으로 나눠 품새 개인전 2,000여 명, 복식전 200여 명, 단체전 300여 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은 4일 오전 11시에 열렸으며 식전 행사로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학생 100여 명의 품새와 격파 시범이 진행되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됨을 감사드리고 태권도를 통한 복음선교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로 9회째 총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나사렛대는 2013년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올림픽, 2015년 유나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바 있다.

전국 교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서약예배

총 5곳 200여 명 성도 장기기증 서약

지난 5월 22일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서울과 충남, 부산을 비롯해 전국 총 5곳의 교회에서 274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참사랑교회(담임 최정웅 목사)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 박진택 목사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해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렸다. 이날 99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서약해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같은 날,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초대교회(담임 서소원 목사)에서도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초대교회는 웨슬리회신 기념 주일을 맞아 본부 최은식 목사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 89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해 뜨거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발걸음은 전국으로 뻗어나가 전남 광주시에 위치한 광양교회(담임 윤태현 목사)에서도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광양교회 윤태현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의 장기기증 서약을 이끌었다.

이날 66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 고통 위에 놓인 장기부전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행복한교회(담임 정일세 목사)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실로암교회(담임 신용섭 목사)



에서도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져 각각 15명, 6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택 목사는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서약 독려를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장기부전 환우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자”는 소감을 전했다.

월례회 및 4박 5일간 태국여행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김중곤 목사)는 지난 5월 31일(화) 오전 11시 군산 주바리교회(담임 김중곤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회원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 제2부회장 양정석 목사의 대표기도, 김훈배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중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빌 1:15-18 말씀을 본문으로 "두 부류의 전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싸움과 다름으로 하는 복음전파가 아닌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나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회장 김철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월례회를 모두 마쳤다.

전북서지방회 회원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태국여행을 하며 내일의 비전을 꿈꾸고 심신의 피로를 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뒤 귀국했다.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열 목사)는 지난 5월 23일(월) 오전 11시 원주시 치악로 1756 소재 반석교회(담임 우영하 목사)에서 동교회 설립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복음화를 통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립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규희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 서기 정주영 목사의 성경봉독, 섬김교회 정재은 목사의 찬양, 지방회장 유홍열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마 16:13-19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열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혼잡에 하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오고 있는 혼돈한 시대에 반석교회는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가 확고히 세워



져서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유홍열 목사의 공도, 증경회장 엄기소 목사의 축사, 부회장 진장길 목사의 헌금기도, 반석교회 우영하 목사의 인사말,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사임직,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위해 헌신 다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6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교회에서 동교회 담임 황희숙 전도사의 목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임직을 축하하며 받은 사명함 모아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정식 목사의 사회, 부회장 장영기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영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6:14-30 말씀을 본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사는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헌신을 다해



야 하며,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한다"고 증거했다. 곧이기는 안수식은 지방회장 김영인 목사를 위시하여 주덕영 목사, 조원재 목사, 장영기 목사가 안

수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원재 목사(순복음풍암교회)와 김정식 목사(순복음공산목양교회)가 권면을, 정복래 목사(동산교회)가 축사를 하였고,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목사안수 임직예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목사

청주지방회

청주지방회(회장 정의섭 목사)는 지난 6월 4일(토) 오전 11시 보은 열린순복음교회(담임교역자 오혜순)에서 정영수 전도사와 오혜순 전도사에 대한 목사안수 임직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장 노부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직전회장 정의섭 목사의 대표기도, 총무 김상훈 목사의 성경봉독, 12제자 기도팀의 특송에 이어 효자문교회 정원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사는 목숨을 내어 놓고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하고 양 때를 잘 돌보는 목자, 열심히 먹이는 목자, 사도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로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목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임직자



와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연제진 목사의 헌금기도 후 이어진 임직식은 지방회장의 집례로 목사안수식이 거행되었으며 축하 순서로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는 축사로, 이광진 목사는 권면으로 정영수 목사와 오혜순 목사의 임직을 축

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했다.

정원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목사안수식, 땅끝까지 복음전파 총력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5월 28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31번길 7-4에 위치한 선한열매교회(담임 김진태 목사)에서 김진태 전도사의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리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맡겨주신 사명감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박홍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눅 5:1-11 말씀을 본문으로 '귀한 만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정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가장 의미있는 만남"이라고 강조하고 목사 임직을 축하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안수식에는 안수위원장 김기인 목사 외 4명의 안수위원들과 함께 안수식을 진행하였



고 축사에는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신혜체일교회 담임), 권면에는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한영교회 담임)가 각각 임직자의 앞 길을 축복했다.

최정용 목사(민음교회 담임)의 헌금기도 후 증경회장 이규호 목사(동산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신학교 선후배와 목회대학원 동기생들의 특별찬양과 축하를 받으면서 김진태 목사는 인사말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것에 큰 감사를 드렸고, 회원들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예배와 안수식을 마친 후 선한열매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임직을 축하하고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마쳤다.

반석교회 설립예배,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회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열 목사)는 지난 5월 23일(월) 오전 11시 원주시 치악로 1756 소재 반석교회(담임 우영하 목사)에서 동교회 설립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복음화를 통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립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규희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 서기 정주영 목사의 성경봉독, 섬김교회 정재은 목사의 찬양, 지방회장 유홍열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마 16:13-19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열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혼잡에 하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오고 있는 혼돈한 시대에 반석교회는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가 확고히 세워

져서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유홍열 목사의 공도, 증경회장 엄기소 목사의 축사, 부회장 진장길 목사의 헌금기도, 반석교회 우영하 목사의 인사말,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월례회 "따뜻함과 매력이 넘치는 교회"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6월 2일(목) 오전 11시 울진 갈릴리온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하반기 사역을 위해 의논하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장동근 목사(순복음예정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진학 목사(대전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광동 목사(울진의료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행 2:46,47 말씀을 본문으로 '따뜻함과 매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방회 모든 교회들이 초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따뜻함과 매력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어 지역 사회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



는 교회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제무 허만운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및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지방회연합제제미나 개최

를 논의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모인 후에는 갈릴리 큰소망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바다가 한 눈에 내려보이는 카페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 7월 आयुर्वेद 때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북인천교회 이전 및 입당 감사 예배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홍영광 목사) 북인천교회(담임 김진홍 목사) 성전이전 및 입당 감사예배가 지난 5월 15일(주일) 오후 3시에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소재 새 성전에서 드려져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밝히 빛내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입당 예배는 지방회 총무 송준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창모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시온 찬양대의 찬양, 직전 지방회장 심현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심 목사는 행 2:42-47 말씀을 본문으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초



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송 받는 교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방희곤 목사의 격려사, 김용

대 목사의 축사, 김자엽 목사의 헌금 기도과 김진홍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심현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새벽교회 창립예배,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홍영광 목사)는 지난 5월 28일(토)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73-101에 위치한 새벽교회(담임 손인환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끝까지 충성과 순종으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조성진 목사(충만교회)의 성경봉독, 유제호 집사의 특별찬양과 지방회장 홍영광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왕상 3:4-15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과 순종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제시해 주었다.



이어 증경회장 심재덕 목사(주안복된교회)의 축사와 인천 영광감리교회 원로 목사인 김흥수 목사의 격려사와 회계 이한숙 목사(사랑순복음교회)의 헌금 기도, 손인환 전도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감격에 차서 순종과 열심을 다짐하는 손전도사의 인사말에 이어 지방회장 홍영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새벽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김상웅 목사

· 예하성 중경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 온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42년 전 바로 오늘 일곱 명의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운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성도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공로롭게도 우리 교회 창립일(1973. 08.16)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정부수립일 다 겹날이어서 기억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광복절(1945.08.15)은 일본의 36년 식민통치의 고통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며, 정부수립일(1948.08.15)은 새로운 국가

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는 곧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자유롭게 할 것과 새로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8월 16일에 창립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사역인데, 이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같으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1.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1)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행하신 사역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본문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23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

는 것이며,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지고(至高)한 생활의 표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2)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의 내용은 같을지 모르나 방법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는 개인이나 무리들을 대상으로 깨우치고 교육하는 것이지만, 전파하는 것은 파와 장소와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외치며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에서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는 항상 모든 병과 약한 것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배푸신 기적 중에 3분의 2는 바로 치료의 기적인데, 이로 보아 주님은

여러 사역 중에 치료사역에 큰 비중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셔서 우리를 강건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확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꾀계를 파멸시키고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을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2. 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창립과 현재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를 회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곱 명의 평신도가 저희 집 안방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가를 개조하여 초막성전으로 옮긴 후에 더욱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초라한 성전을 비웃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전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만난 전능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환난 당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은 곧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과 전하는 성경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 교회는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기도와 열정이 넘치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차례의 성전건축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2014년 2월에 대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건축을 방해하고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믿음으로 성전건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된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한 대성전에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우리 교회는 교계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실천할 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015년 8월 16일 설교 요약 —

동 정

멜빈 박사 강의



탈동성애인권포럼 주최 '탈동성애 서울 포럼'이 1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울 뉴국제호텔 16층 회의실(4층역 4번출구)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성애 치유 임상사역자이자 엑소더스(Exodus)의 전 이사장인 멜빈 박사(Dr. Melvin)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취임식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택)은 제25대 김필수사령관의 취임식이 5일 오후 3시 구세군아트홀에서 열렸다. 구세군에서 사령관을 127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단체인 구세군에서 한국구세군을 대표하게 된다. 김필수 신임 사령관은 1983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하여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장을 거쳐 경남지방장관과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이혜훈 의원 “이슬람의 위험성”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내 이슬람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명동 프린스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2차 세계선교연대대표 회의(요한 목사)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은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기주교협 중경회장단 한기형



남기주기독교교회협의회 중경회장단이 제11회 총회를 열고 회장에 한기형 목사, 부회장에 박효우 목사를 추대하고 총무에 정해진 목사를 임명했다. 한기형 신임회장은 “중경회장들은 교계를 위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협력할 일이 생기면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충고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동성애 조장 저지운동 방향 전환해야...장기적 전략으로 나아가야

지난 2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진상이 경찰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국정체는 “대부도 토막살인 배경엔 동성애...조성호, 동거남에 성관계 대가 못 받자 살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씨는 피해자 최모(40) 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받기로 했던 90만원 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똥 파는 놈이” 등의 욕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동성애의 현주소다.

이제 한국교회의 동성애 조장 반대 운동에 대한 대응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해마다 6월이면, 서울광장 퀴어집회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식의 교계 연합의 ‘반대 집회’는 오히려 동성애를 지

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언론들에게도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한다’는 오해를 심어준다. 매년마다 맞대응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오히려 대규모 반대집회 장면들은 국제 인권단체와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차별과 혐오를 증명하는 자료로 역이용 되고 있다.

이제 동성애 조장과 동성애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저지운동과 대응방향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제안한다.

첫째, 이제 외부집회는 시민단체인 NGO가 중심이 되어 NGO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함께 도

덕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NGO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학부형이 중심이 된 어머니 단체들의 집중 육성이 절실하다. 이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는 교회당에서 기도회로 모여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언론들에게 적극적인 동성애와 에이즈의 실체를 알려야 하며,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알려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슬로건은 ‘동성애 반대운동’이 아니라 ‘동성애 조장 반대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교육부, 교육청 공직자들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과 대학교 교수들을 깨워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정당 정치인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 대학생들과 군장병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

일곱째, 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를 깨워야 한다.

이제는 불쾌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반대만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전 범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돌출된 행동을 피하고, 심사숙고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거리에서 벌이는 퀴어 반대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백년 이상을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하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 이런 장기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과 언론을 깨워야 한다. 정부와 국회를 깨우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깨워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6월 2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조 남 영
총 무 목사 최 형 택

목회자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

수천 마리의 생쥐와 집쥐들이 순식간에 달려 나와 자신들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궁전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놈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그들을 위협하고 마음대로 잡고 발톱을 세워 쥐들을 던지며 위험한 장난을 하곤 했다. 쥐들이 말했다.

“우리는 공포 때문에 감히 밖을 내다 볼 수조차 없었다. 만일 우리가 고양이의 놀이에 항의하면 그는 우리를 합치고 발톱으로 움켜잡으며 괴롭힐 것이다. 그가 우리를 떨어뜨릴 때면 이미 우리의 삶은 슬픔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욕망을 꺾어놓을 계획만 있다면 군주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설득력 있는 연변을 가진 명망 있는 쥐가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던전에서 많은 사람이 목에 빛나는 목걸이와 화려한 목장식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와 그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어디든지 목줄도 없이 돌아다닌다. 세상에! 만약 그들의 목걸이에 방울을 단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도 망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이나 은으로 만든 방울을 사서 고양이의 목에 거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휴식을 취하는지, 혹

은 밖에서 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만일 그가 놀고 싶은 기분이라면 그 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일 그가 기분 나쁜 상태라면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그곳에 있던 모든 쥐들이 이 주장에 찬조했다. 그러나 방울을 사서 목걸이에 달아야 할 때, 프랑스 땅 전부를 주고 영국을 몽땅 준다고 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를 가진 쥐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할 용기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계략은 참담한 실패였고, 그들의 노력과 심사숙고도 모두 헛된 일이 되었다.

내가 보기에 매우 지각 있어 보이는 어떤 쥐가 단호하게 나서서 모든 쥐들 앞에서 말했다.

“비록 우리가 그 고양이를 죽인다 해도 또 다른 고양이가 나타나 의자 아래 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내 충고는 고양이를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그의 눈앞에서 방울을 달려고 성급하게 굴지 말자는 것이다. ~그의 권위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비록 우리가 한 명의 독재자를 제거한다고 해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해악과 슬픔보다 작은 손실이 더 낫다. ~ 만일 너희 시궁쥐들이 마음대로 한다면 너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 비록 방울을 사는 데 돈을 내지 않았지만 목걸이에 대한 모든

논의에 반대하며 돈을 냈다 할지라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할 것이다. 고양이 목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유롭게 사냥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 있는 자들에게 하는 내 충고는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출처 : 농부 피어스의 꿈)

14C의 유럽? 그런데 21C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에서, “아다지도 인간은 달라질 수 없는 존재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더욱 어두운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까?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손에는 부정부패로 가득, 공의(公義)는 실종(失蹤), 하는 독설을 풀어대지만, 한 때 “가만있어라!”는 말이 유행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점차 기억에서 사라져 가듯, 삼팔선과 같이,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사이에도 철조망이 세워지는 등, 자신이 움켜진 것은 어떤 죄악을 행해서라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현실 앞에서, 진정 “자신의 일에만 충실 하라”는 말에 동의해야 “그리스도인”일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 하시는나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 21:2-3)



신앙의 승리 실화 ‘불의 전차’ 16일 개봉

소위 ‘흙수저론’에 빠져 꿈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영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던, 실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 ‘불의 전차’가 16일 전국의 100여 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통해 개봉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이며 단거리 경주 선수였었는데, 그는 올림픽에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달리기 위하여 수년간 피나는 노력을 한다.

그의 주종목은 100m였는데, 그가 출전한 종목의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로 예정된다.

이에 에릭 리델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주일에 치러지는 경기에는 신앙 양심상 출전할 수 없다고 하여, 경기를 포기하고 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종목인 100m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주에 출전하게 된다. 그러나 4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 에릭 리델의 경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낯선 종목인 400m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다.

그는 말한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껴!

그는 올림픽 우승으로 일약 대스타가 된다. 그러나 그는 유명세를 떨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선교 현장으로 출연히 떠난다.

이 영화는 35년 전에 제작되어, 1982년 제54회 아카데미상에서 감독, 작품, 각본, 음악, 의상 등 5관왕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37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를 기록한다. 또 1981년 34회 칸 영화제에서는 기독교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다.

이것을 다시, 디지털 리마스터링 및 감독판으로 만들어, 35년 만에 국내 스크린을 통하여 개봉하는 것이다.

이 영화는 기독교인, 교회가 단체로 관람하기에 편리하며, 특하나 소위 ‘흙수저론’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기독교인이자라면 누구나 이 영화를 통하여, 험난한 세상에서 참신앙의 의미를 되찾기 바란다.

140만 독거어르신 사랑의 삼계탕대축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140만 나눔행사추진, 발대식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이사장:이선구)와 사)대한노인회(회장:이 섬)가 공동주최하고 제1회 140만 독거어르신 효나눔 사랑의 삼계탕대축제(상임대표 정운찬 전 총리/공동대표: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이선구 이사장)가 주관하는 우리는 하나, 효도하는 대한민국 국회선포식 및 임원추대식이 정계, 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지도자 및 대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메노스 양상철의 오프닝공연과 정운찬 전 총리의 개식에 이어 공동대표를 맡은 김영진 전 장관의 환영사와 이주영 전 장관의 축사와 이사장 이선구 목사의 경위보고 및 내빈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운찬 상임대표는 개식사에서 “오랫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온 각계 지도자와 시민단체가 하나 되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전개될 사업과 활동에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진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오늘 우리 모두의 어버이들께서는 잔혹한 일제 36년과 동족상잔의 6.25동란과 민족 최대의 경제환란인 IMF를 극복해 오셨으로 우리나라가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어 오신 최대의 유공자들이시며 우리 어르신들은 예우와 섬김의 뒷전에 밀려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해 가고자 오늘이 이 기구를 창설하여 140만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병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와 사랑의 삼계탕대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16일 전국 일원에 걸쳐 제1회 효나눔 사랑의 삼계탕축제’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본부(대표: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조직본부(박주선 국회의원/송영길 국회의원/이혜훈 국회의원)과 450여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총재:고종욱) 등과 함께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다짐했다.

이어서 송영길 더민주당의원, 문병호 전의원, 고종욱 총재, 이섬 회장 등의 축사 후 내빈 및 순서담당자들의 축하 떡차르기, 팔찌대꾸, 자스민 등의 축하공연과 단체기념촬영 등을 진행한 후 폐회선언으로 모든 순서가 성료되었다.

기아대책 홍보대사 정태우, 가족들과 재능기부 나서

아내, 아들 하준·하린과 함께 화보 촬영

기아대책 국내 복지 증진 활동 알리기 위해 사용될 예정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홍보대사 정태우 씨가 가족들과 함께 국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능기부 화보촬영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태우 씨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더옥스튜디오'에서 아내 정인희 씨와 아들 하준·하린과 함께 화보 촬영을 했다. 이날 촬영한 화보는 기아대책의 다양한 국내복지사업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정태우 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전세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봉사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촬영이 그 첫걸음인 것 같아 기쁘고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내 정인희 씨는 “남편이 기아대책 홍보대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태우 씨는 1998년 기아대책 청소년 홍보대사로 인연을 맺고 활동해왔다. 이후 20년 가까이 기아대책 한물나눔축제 자선달리기 등 주요 행사에 홍보대사로 참여했으며, 기아대책을 통해 캄보디아 어린이를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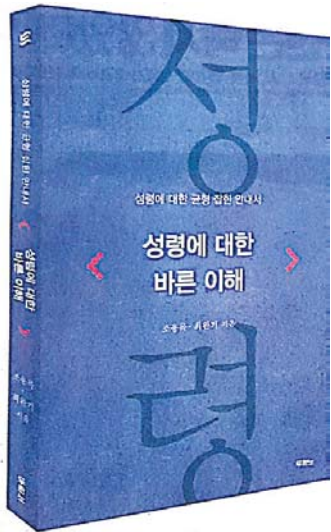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자 조용목 목사는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는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월례회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홍택 목사)는 지난 6월 13일(월) 오전 11시 에바다순복음교회(담임 유석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회원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신근철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임홍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행 20:24 말씀을 본문으로 '바

울의 사명'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뿐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겨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들을 축복했다.

회계 김순형 목사의 헌금기도 후 중경회장 윤장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부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에바다순복음교회(담임 유석구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월례회 세태에 변질되지 않는 복음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 6월 월례회가 지난 6월 13일(월) 오전 11시 장녕순복음교회(담임 양희남 목사)에서 열려 교단과 지방회, 회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의 인도로 서기 임종호 목사의 기도예배로 시작되어 김영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15:31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디모데에게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바울사도'에 대한 함담 10가지(사도권, 외모, 언변, 독신생활, 헌금문제, 고질병, 담력이 없



는 것 등을 전해 들었지만, 낙심하거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사역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애하성 교단이 세태에 변질되지 않는 올 끝은 복음수호를 선포하는 교단이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지방회 중경회장 김갑신 목사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사회로 회무처리를 마친 후 사원한 신바람이 부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장영교회 후원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였고, 지방회 부회장 최남성 목사의 모친(김영애 권사)이 입원해 있는 별교 삼성노인병원을 찾아 심방예배를 드리고 회유를 위하여 기도했다.

목사임직 일군으로 택함 받은 은혜

강원서지방회

강원서지방회(회장 최승수 목사)는 지난 12일(주일) 성산온혜교회(담임 김재두 목사)에서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법서 전도사(가나안교회)의 목사 임직예배는 지방회장 최승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희자 목사(바울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신학교·목대원 동기생들의 특송, 중경회장 김희태 목사(간현

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3:7-9 말씀을 본문으로 '일꾼된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일군으로 택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미전한 자라도 일군으로 쓰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시느니 값이 생 각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임직자와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안수위원장인 지방회장 최승수 목사 집례로 거행된 임직식은 안수위원 김희태 목사, 권용덕 목사, 박성윤 목사와 임직 예식을 치르고 서법서 전도사가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대내외에 공포했다.



제3회 한마음 체육대회... 선한 경쟁 사랑나눔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 삼산순복음교회)는 지난 6월 13일(월) 제3회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충북 괴산 실내체육관에서 갖고 각종 운동경기를 통해 지용을 겨루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나눔의 복된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세 번째 치러진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방회 22개 교회 53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서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오병용 목사(이편순복음교회)의 기도예배 이어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가 답후 2:5의 성경을 본문으로 하여 '한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경기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열매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열매로 경기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한사람도 다치지 않고 회원 모두가 한마음을 보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체육위원장 김운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체육부장 조재호 목사(장대순복음교



회)의 경기운영 및 방법을 듣고 곧바로 경기에 들어갔다.

심판 허시진 목사(미암교회)의 진행으로 청군(청주 동부권역 14개 교회, 팀장 김용 목사)과 백군(청주 및 서부권역 16개 교회, 팀장 오병용 목사)으로 나뉘어 총 8개 종목(볼리, 피구, 농구, 자유투, 볼링, 족구, 발아구, 배구, 탁레이)으로 경기를 가졌다.

한마음 되어 즐겁게 오전 경기를 마치고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에는 발아구, 배구, 탁레이를 끝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경기는 청군이 500점을 얻었고,

백군이 550점을 얻어 승리하였으며, 3부 순서로는 우승팀에게는 대형세제를 준우승 팀에게는 그 보다 조금 작은 세제의 상품을 시상했다.

한편 지방회장과 체육위원장이 자전거 1대씩을, 중경회장들을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찬조금과 풍성한 경품을 내놓았으며, 경품행사에서 자전거와 선풍기, 전자시계, 상품권, 건강식품, 냄비, 십자가 등 풍성한 선물을 나눴다. 끝으로 기념촬영과 지방회장의 폐회 선언, 중경회장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6년 7월 11일(월) ~ 15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외 5명
- 등록 마감 : 2016년 7월 4일(월)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 헌금 : 1,000,000원(숙식은 각자 해결하셔야 합니다)
- 선교 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주 제

대한민국 국민이여! 깨어 일어나라!

대 회 조 직

고 문
여영수 목사, 김원식 목사, 육옥수 목사,
김기형 목사, 송 현 목사, 이일일 목사
대 회 장 - 김노아 목사, 이경용 목사
준비위원장 - 이경익 목사, 이성현 목사
준비부위원장 - 장승우 목사

김광호 목사, 지복환 목사, 손대영 목사, 정찬희 목사,
고종현 목사, 서재현 목사, 오신미 목사, 허석수 목사,
임은선 목사, 서재복 목사, 김마리 목사, 김태지 목사,
김영희 목사, 조영우 목사, 신승도 목사

공동회장
고정수, 김남식, 김마리, 김병선, 김재경, 김용현,
김원익, 김연선, 김영배, 김장철, 김철중, 김성태,
김성중, 김한규, 김경태, 김진경, 공정석, 맹호길,
박영성, 박요한, 박민석, 박관용, 박경진, 박순영,
신숙자, 서성현, 서수원, 서재복, 서봉진, 이경세,
이봉구, 이원호, 이규필, 오종선, 이태주, 이상태,
이승주, 이종택, 이석주, 이호현, 오종선, 유연식,
유진희, 윤병희, 윤영숙, 윤여중, 육남식, 민병성,
민영선, 우창규, 조요한, 정대경, 정성일, 정태익,
정태희, 정영기, 정윤경, 장바울, 전동진, 주종필,
조규애, 차요한, 최봉익, 최창일, 최선근, 한승훈,
하태권, 황성호, 황근국, 한윤규, 한영우, 황대영

지도위원
김국현, 김기순, 김병록, 김대미, 김민영, 김은영,
김형경, 김경숙, 김태권, 김양진, 김윤식, 김종필,
김원수, 김기봉, 고재민, 권대경, 계승창, 남대현,
남주석, 문인숙, 민경선, 박기태, 박경자, 박홍수,
박종문, 박현준, 박지현, 박정열, 박찬영, 박 창,
배옥선, 배경재, 서상원, 서수원, 서수원, 송형자,
송기영, 오종호, 오성숙, 이강조, 이기인, 이명순,
이상철, 이순자, 이성숙, 이영근, 이영민, 이윤호,
이종균, 이창중, 이현선, 이형우, 이종균, 유재연,
임두환, 오세훈, 안정순, 안미경, 어귀선, 염동선,
엄진화, 엄병희, 조영태, 조영만, 조문호, 정기훈,
정태남, 장홍수, 장은영, 전수용, 최상원, 최광열,
최미숙, 최경기, 차승민, 최천봉, 허수복, 허도경

합동총무
김병력, 김대일, 김원철, 김현주, 김영은, 김필교,
김태근, 권오영, 서준호, 신석만, 성경숙, 성재현,
순정섭, 신종광, 이남현, 이서광, 이훈숙, 이형우,
이훈식, 이훈우, 이한나, 인건일, 임희표, 안성영,

유일진, 윤보을, 육승자, 연규석, 오수숙, 오순환,
임정배, 조문형, 조예선, 조완중, 정대중, 전기민,
한성자

총괄총무 - 고종현 목사
서 기 - 손대영 목사
회 계 - 오신미 목사
감 사 - 정찬희 목사, 김태지 목사, 김영희 목사,

※ 분과위원장
기획분과 위원장 : 허태권 서기 : 차요한
김지희, 권대경, 조영민, 최천봉, 황수용
예배분과 위원장 : 고종현 서기 : 손대영
김경태, 정찬희, 오신미, 박현준, 김기봉

통사분과 위원장 : 김기봉 서기 : 이명순
김성태, 김순희, 이명숙, 이현선, 성은혜
홍보분과 위원장 : 유연식 서기 : 김기봉
김정희, 김주혜, 박희경, 오순환, 유일선
통역분과 위원장 : 정찬희 서기 : 배경재
정희선, 임영준, 이재규, 양영희, 이상표

사회분과 위원장 : 이훈선 서기 : 허석수
김경숙, 문인숙, 이윤숙, 이현선, 조사리
재정분과 위원장 : 오신미 서기 : 김마리
이한나, 이순자, 오성숙, 최남식, 황수자

주관 :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협찬 : 교회연합신문, 복음신문, 목양신문, CTS기독교TV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4길 3, 원석빌딩 201호 전화 : 02-706-2970~1 FAX : 02-706-2990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제66회 6.25 국가기도회

일 시 2016년 6월 25일(토) 오전 11시

장 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광중앙교회(담임 김노아 목사)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솔밭로 28 전화 : 02-884-454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글로벌교육선교회, GYF & GAO 개최

GVCS, 상호협력 및 지구촌 문제 해결방안 모색

글로벌교육선교회(이사장 남진석)는 6월 10일부터 17일간 세계 청소년 포럼(Global Youth Forum/이하 GYF) & 글로벌 학술 올림픽(Global Academic Olympiad/이하 GAO)을 미국, 중국, 동남 아시아권 고등학생들과 함께 글로벌선진학교 분경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가 간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길과 지구촌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학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미 미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한국 등 세계 각국의 고등학교에서 접수를 신청해 명실공히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GYF 및 GAO는 미국, 동남아시아, 한국 등 세계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과 학력경시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한국 등 23개 팀이 참가하게 된다.

GYF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와 고장을 알리고, 지구촌 문제들에 대해 상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색의 다문화를 경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된다. 각국의 학생들을 위해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방청객(참관자)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학력경시대회인 GAO는 3개 교과(수학, 과학, 인문학)를 9개 과목(기하, 함수, 미적분, 기초과학, 생물, 화학, 세계역사개관, 문화개관)으로 나누어 경시하게 된다.



다. 출제문제의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문제출제의 수준을 초급(30%), 중급(30%), 고급(40%) 비율로 분배하였으며 엄정하고 공정한 경시가 되도록 주최측에서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GYF와 GAO 참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학생은 대회출전 학생들의 각 나라에 부속위로 속하여 각국 선수들을 서포팅하고 응원하게 된다.

또한 GAO에서는 대회보조요원으로, GYF에서는

소감문 에세이 쓰기대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학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이 밖의 행사로 오리엔테이션, 환영행사(GVCS 태권도 시범단, 합창단 축하공연), 각 나라별 장기자랑, 참가자 장학퀴즈, 초청인사 강연,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 명소지 탐방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각 대회마다 분야별, 개인, 단체별로 대상, 금, 은, 동상 및 인기상, 창의상, 장기자랑상, 특별상 등이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슬람 꾸란”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유해석 선교사 출판기념 강연회 개최

영국 웨일스대학교 신학 이슬람학부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슬람 전문가 유해석 선교사가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을 출간하고 20일 서울 노량진 CTS 기독교IV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

유 선교사는 한국에 이슬람이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속으로 동화됐다고 설명하고 당시 이슬람 인구는 극소수였으나 1970년 3700명이던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25만 명이 됐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까지 가세하여 국내에서 이슬람의 성장을 부채질하고 있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 필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이슬람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라는 같은 신인가?,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유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생소하게 생각하는 이슬람은 놀랄케도 70년의 약 60%가 구약성경과 비슷하고 17%가 신약성경과 비슷하다”면서 “꾸란에서는 알라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강의를 통하여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출판기념 강연회에 이슬람을



바로알고 대처를 하기 위한 목회자와 신학생, 기독교인들은 참석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와 동 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유해석 선교사는 영국 웨일스대학교 신학 이슬람학부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GMS 파송선교사로 오멘선교회와 협력해 이집트에서 사역했으며, 현재 FIM국제선교회 대표,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로 섬기고 있다.

월드미션신문 창간 12주년 예배

이사장 · 부이사장 · 사장 취임예배로 드려

월드미션은 지난 5월 26일 오후3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창간 12주년 및 이사장 · 부이사장 · 사장 · 이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사장에 임성이 목사, 부이사장에 박영운 목사, 사장에 노재환 목사가 각각 취임했다.

1부 예배는 이사 박형철 목사(한우리교회)의 사회로 후원이사장 박홍석 목사가 열 4:1~3 말씀을 본론으로 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했다.

박홍석 목사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교계연

론에 있는데,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언론이 되어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라”고 당부했다.

2부 취임식은 박지태 목사(마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이사장)가 권면을, 황원찬 목사(대신대학원대학교 총장) · 전용만 목사(예장통합 부총사회 중경회장)가 축사를, 강준오 목사(한국기독교언론협회 회장) · 김진욱 목사(한국기독교언론사 후원재단 상임대표)가 각각 격려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송용필 목사(햇빛트리나눔선학대학원 부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2016 지식재산권 경영 및 IVY리그 탐방연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진로코칭의 기회를 갖게 돼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는 국내 중1~고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 지식재산권 경영 및 IVY리그 탐방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 · 경영 · 과학 · 법조인의 미래를 설계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미 IVY리그 등 명문대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8박 10일간 진행 된다.

참가학생들은 워싱턴대, 뉴욕대, 보스턴대, 하버드대, 예일대, MIT대, 컬럼비아대 등 세계 최고의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방문해 선진교육을 체험하고, 재학 중인 선배의 조언과 경험담을 직접 들으며 에세이(자소서) 작성법을 배우는 등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진로코칭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들 국가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연수활동과 수행과제결과를 참가학생들이 공동저자



로 참여해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이사장 최원호 박사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바람이지만, 글로벌 인재는

특화된 분야에서 미래세계를 대비하며 선도적인 진로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의 다양한 지식 정보의 이해, 국제화된 인성이 필요하며 이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특별한 연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 자체가 미래기업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은 지적재산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중 · 고등학생 때부터 소리 없는 총성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진로코칭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내 IP(Intellectual property)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 경영, 과학,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중1~고2 학생은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참가신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용은 동 협회 홈페이지(www.yi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교단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

지도교단



김인찬 목사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교단

증경총회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임종달 목사(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김인구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조남영 목사(기평순복음교회)

회장

상임위원

신재영 목사(새김전 교회)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오송옥 목사(천안시 복교회)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동등순복음교회)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미교회)
김비을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서기재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

회계

감사

회원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정환무 전도사(순복음빛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제51회 한국기독교미술인 협회전

제29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시상식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전
이정자 회원 수상자로 선정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전이 지난 8일(수)부터 13일(월)까지 6일간 광화문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려 미술작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화상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51회 한국기독교미술인 협회전시회는 제29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시상식을 겸하여 열려 이번 전시회 첫날 8일 오후 3시 전시홀에서 1부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자 회원은 이화여대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인전 9회(초대전 7회) 단체전 700회 이상 출품한 중견작가로 사)한국전업미술작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구상조각회 회장을 역임한 미술계의 거목이기도 하다.

이정자 수상자는 수상소감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의미있는 격려에 회원들 모두와 하나님



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두옥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재규 목사의 대표기도, 정두옥 사무국장의 성경봉독,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대하 25:1,2 말씀을 본문으로 '정직과 온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능을 통해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회원들의 주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전하고 더욱 장대케 되기를 축복했다.

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지영 성악가의 축가로 2부 순서를 열었다. 정두옥 사무국장의 내빈소개, 최명렬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최 회장은 전 김은희 사무국장과의 전 유언 총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곧바로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제29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수상자에 이정자 회원이 선정되었음을 전하고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예비된 영혼을 향한 사랑!”

18세에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자랑하고 싶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부담으로 안고 살다가 14년 전에 신유전도집회에서 박영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극복하면서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도와 기도에 열을 하던 중에 교회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목사가 되었다. 지구촌신교교회는 이름으로 인전 효성동이라는 곳에 갈보리 언덕을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지켜온 십자가! 별시와 조동과 외면과 함께 동반된 그 쓰러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무엇으로 다 보답 할 길이 없어 시 작된 지구촌신교교회가 예수님의 고통의 피땀한 한을 품고 예비된 영혼을 향해 그 사랑을 발현시키려는 이 시점에서 14년 전에 한 시골 퇴촌감리교회에서 열린 신유전도집회에서 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나에게 전도의 사명과 함께 영육이 경쟁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한 박영수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지인 목사님들의 인도로 찾게 된 평내순복음교회에서 내 운명의 전환점을 찾아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전도자 박영수 목사님을 다시 만난 것이다. 평내순복음교회에 도착해보니 훈련생들은 이미 박영수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전도에 열중하고 있었다. 전도의 현장은 지열한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박영수(학장) 목사님은 거침없이 행인들과 상가에 들어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영접기도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와 진한 감동의 은혜가 느껴졌다.

그 순간 노점의 옷가게 앞에서 중년이 넘어 보이는



지구촌신교교회/황찬호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CTS, 동성애 관련 특집 프로그램 편성

특집 CTS뉴스플러스, 특별 생방송 동성애 STOP 등 방영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동성애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성애와 관련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6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집중 편성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 동성애 특집 〈CTS 뉴스플러스〉

먼저 6월 10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 '동성애 특집 〈CTS 뉴스플러스〉'에서는 당일 뉴스를 〈동성애〉와 관련한 보도로 전체 구성하고,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문화·보건적 문제점을 집중 취재 보도했다.

△ 동성애와 다문화 △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 이슈와 문제 △ 동성애와 보건문제 △ 동성애로 세금이 내고 있다 △ 정치 이용하는 쿼이 축제 △ 차별 금지법, 행보와 과제 △ 쿼이 축제가 보이는 반사회적, 반성경적 코드에 대한 특별 기획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

◇ 특별생방송 〈CTS 대국민 캠페인·동성애 STOP〉

CTS는 지난 2014년부터 동성애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리는 CTS대국민캠페인 〈동성애, STOP〉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동성애 축제에 맞서 '특별 생방송 〈CTS 대국민 캠페인·동성애 STOP〉'을 방송했다.



◇ 동성애 특집 토크 콘서트, 다큐멘터리

‘CTS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STOP’의 일환으로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동성애 STOP 토크콘서트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2부작)'〉을 1부 6일(월) 저녁 6시, 2부 7일(화) 저녁 18시에 각 방영했다.

이태희 변호사(국제변호사,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와 김지연 국장(한국 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장,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담자로 참석하여 차별금지법과 보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다양한 해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예방송 1부 7일 오전 2시, 2부 8일 오전 2시)

탈 동성애자들의 고통 받는 삶을 통해 기독교의 역할을 조명할 시네마 다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

닙니다'는 8일(수) 저녁 6시 방송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잣대를 모호하게 하는 동성애의 실체와 인권존중이라는 틀에 싸여 미화되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바로 알리는 'CTS 특집 다큐멘터리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은 9일(목) 저녁 6시에 방송됐다. (예방송 9일(목) 오전 2시, 10일(목) 오전 2시)

CTS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으로 동성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조질서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TS는 동성애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캠페인 〈동성애, STOP〉을 꾸준히 전개해 오면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TS특별대담(6부작)〉, 〈CTS뉴스플러스 - 동성애 특별 기획〉, 〈동성애 STOP 토크콘서트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2부작)'〉을 방송했고, 동성애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한 〈특집다큐멘터리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제작 방송했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서울 예정교회에서 6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분(이사장 피종진 목사·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 주최하는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오는 6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개최된다.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 중앙교회), 원필연 목사(전주비율교회), 오법열 목사(성산교회),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 박영길 목사(명문교회), 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이석우 목사(늘푸른진건교회), 강진상 목사(양양평산교회), 다나엘김 선교사(UGM 대표), 김영재 목사(우리들교회), 박신실 사모(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 하

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등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사모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예정이다.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사모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헌과 은혜를 받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회복과 충전 그리고 치유의 현장인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숙박과 등록비 일체 무료이다.(www.samonews.kr)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쇄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YONSEI NANUM CLINIC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동성애자들의 서울시청앞 퀴어축제를 반대한다

6월 8일~10일 서울시청 앞 광장, 미스바 구국금식기도 성회 열려

'2016 퀴어문화축제'가 11일(토) 서울광장에서 열려 서울광장에서 약 1시간 가량 머물던 퀴어축제 참가자들은 이후 오후 2시, 회현사거리, 롯데백화점 본점을 지나 서울광장으로 되돌아 오는, 약 3km에 이르는 구간을 동성애 퍼포먼스를 하며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같은 반인륜적 행위가 한국의 수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 참담하기까지 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교계에서는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취소 국민대회를 열고, 한

단체는 서울시청 광장 사용허가 취소청구 소송 및 취소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행정적인 대응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의 그릇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한국교회 미스바 구국금식기도성회(주관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사)가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서울광장에서 금식기도성회로 사흘간 계속되었다.

주최측은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사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의 한국을 구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인간의 힘 만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며 "2013년 WCC 총회 당시, 총회에 반대하여 '한국교회 부흥성회'에 참여했던 바



최형택 목사

홍현철 목사

정영진 목사

한다"고 전했다.

이번 미스바 구국금식기도성회에는 예하성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 홍현철 목사, 김건수 목사, 정영진 목사 등 부흥사들이 시간 시간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변화되어 새 삶을 찾을 것을 역설했다.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안성지역복음화를 위해 총력, 새성전 입당 축하

경기남지방회 평강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담임 정석현 목사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 평강교회(담임 목사 정석현 목사, 협동목사 박문수 목사) 성전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6일(월)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아촌길 9-9 동교회 새성전에서 드려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안성지역복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평강교회 담임 정석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남지방회 김기인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박해영 사모의 특송,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막 2:22 말씀을 본문으로 '제2의 출발'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강교회가 안성으로 이전하여 제2의 복음증거사역을 감당하게 되심을 축하하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교회 위에 함께 하

심을 믿는다'고 전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열정과 새 마음 새 뜻으로 평강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일으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평강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2부 축하와 축복시간에는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와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선용 목사의 축사,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와 이현재 의원 등이 새성전 입당을 축하하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평강교회와 담임 정석현



설교 유봉수 목사

격려사 이현재 국회의원

격려사 김인찬 목사

축사 김용덕 목사

축사 이선용 목사

기도 김기인 목사

헌금기도 박흥열 목사

목사와 성도들이 될 것을 격려 및 축사를 통해 축복했다. 경기남지방회 총무 박흥열 목사의 헌금기도, 목대원

중장단의 헌금특송, 정석현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성전이전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6차 정기 월례회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단 전국사모연합회 제6차 정기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년 6월 27일(월) 오후 1시(12시부터 점심사)
장소 총회본부 302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TEL 02-2675-5181-3

참석대상 전국사모연합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고문 최혜선 다라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전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김명숙 순복음가계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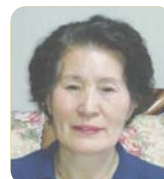
직전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1부회장 한은정 가평순복음교회



2부회장 김봉선 새여수순복음교회



3부회장 이은숙 정읍순복음중앙교회



총무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협동총무 김숙향 안성평강교회



서기 오숙희 밝은빛교회



부서기 신명희 부강순복음교회



회계 조정에 순복음약속교회



부회계 김국자 세종순복음교회



재무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감사 박정선 고흥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차추련 총무 박경미 (010-2167-7422)

한국복음주의협 강의록

전문료 목사 // 한복협 중앙위원, 발음교회 담임

내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생명을 걸고 지키고 전하고자 한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외지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언제나 나아갔습니다.

제주도에는 이기풍 목사(1868~1942)께서 첫선 교지로 파송된 것을 기념하여 세운 이기풍 선교기념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을 말하나 이기풍 목사님의 사역을 선교라 부르는 것은 당시 제주도 가 언어를 비롯한 문화가 해외나 다름없는 전도하기에 아주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인 본인은 첫 번 목회지가 제주도 사계교회였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설립했던 모슬포교회에서 기도처로 개척한 작은 어촌 교회였습니다. 전도사로 보낸 받아 담임목사로 4년간 사역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100여년 전 불모지와 같은 제주 땅에서 헌신한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 존경을 넘어 경외스러이까지 하였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겠기 때문입니다.

● 생애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산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증조부는 무관 출신으로 홍경래의 난을 지지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피신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탓인지 이 목사님은 일찍 사서삼경을 독학한 영특한 아이였으나 부자와 고관대작들을 아주 싫어하였고 술과 싸움으로 평양의 건달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지기의 명수이며 돌팔매질 또한 잘하였는데 이 실력으로 평양정터에서 노랑전도를 하던 마펏 선교사(S. A. Moffet 1864~1938, 한국명 마포삼열)의 덕을 가하여 쓰러지게 한 시인은 유명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평양은 전쟁터가 되어 이 목사님 일가는 원산으로 피난하여 살았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 스왈튼 선교사(W. L. Swallen 1859~1954, 한국명 소안련)를 보고 이전 평양에서 마펏 선교사를 돌로 친 기억이 되살아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전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그 일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사도바울이 그러했던 “기쁨이 기쁨이, 왜 나를 핍박하는나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개하고 스왈튼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

● 사역

세례 후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전도자가 되어 스왈튼 선교사

를 돕던 이 목사님은 1907년 마펏 선교사가 설립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인 중 한 사람이 되었고 한국인 최초 목사안수를 기념하여 제주도 파송을 결정한 노회의 결의에 제주도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은 것은바로 이점입니다. 육지든 섬이든, 사람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유력한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이땅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그것을 실천하려고 스스로 가장 외진 지역으로 자원하였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매여 산 분입니다.

당시 제주도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배가 파선하여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 목사님이 탄 뚝단배도 거센 풍랑 속에 좌초하여 간신히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도의 사명감은 불타올랐지만 육지와 전혀 다른 언어, 문화, 환경에다 흥선대원군의 천주교인 학살 사건 여파로 단 한사람과도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심한 고생으로 그만 바닷가에 서 쓰러지고만 이 목사님을 한 해녀가 도와주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놀라게도 이 해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첫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개인적 친밀도를 더하기면서 복음전할 기회를 모색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1909년 5월 제주도에 대흥수가 났을 때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 제주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고 육지 사람들에게 착취당한다는 이중적 피해 의식 때문에 누구도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의 7년 사역 동안 제주 성내 교회를 필두로 금성, 삼양, 성읍, 조천, 모슬포, 한림, 용수, 세하 등의 교회를 개척하여 제주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915년 안식년을 얻어 평양에 돌아간 후, 1916년 전라남도 광주 북문내교회에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호남지역의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엔 조선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을, 1921년에는 총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총회장 임기가 끝나자 전남 순천중앙교회와 고흥의 개척교회를 섬기다 다시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7년간의 2차 제주도 선교 후 부흥하고 안정된 교회를 떠나, 1934년 초 땅 끝 마을 작은 섬, 전남 여수 남면 우학리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이 섬을 기점으로 돌산, 안산 등 5개 섬을 배 타고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닥뜨린 이 목사님은 격렬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1938년 일본 경찰에 의해 구속 수감되어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 위험하게 된 이 목사님은 일제의 강제 개척방으로 우학리교회로 옮겨졌고, 1942년 6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 공헌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적 책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현대선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준비가 없고, 선교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주도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주도회는 독립 노회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 교회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과 독특함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을 제 공하였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의 제주선교는 엄밀하게는 내지 선교이지만 한국교회에 해외선교의 열정을 불어넣는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선교에 이어 1908년 일본 선교, 1909년 사메리아 선교, 1912년 중국 산둥성 선교가 그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생명을 걸고 지키고 전하고자 한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외지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언제나 나아갔습니다. 그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가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까지 멀리 있게 하서는 안된다는 전도자의 마음이 소외된 섬 제주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 제주도에서의 사역의 열정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버쳐 충성하신 이 목사님은 저로 하여금 첫 목회지인 제주도에서의 초심을 늘 기억하게 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마다하고 복음을 위해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간 이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열정과 헌신이 저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 선배요, 따라가고 싶은 목회 모델로 삼게 하였습니다.

사설

신앙심과 애국심

6.25 남침전쟁 66주년이 되었다. 그러하건만 이 나라는 또다시 혼란과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413종 선언으로 야당이 다수로 장악된 여소야대 국회는 안정적 인 정국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국민정신 무장 상태는 너무나 해이한 모습이라서 국민들의 애국심조차 실종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참으로 우려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상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심과 애국심, 애국심과 신앙심은 동심원(同心圓)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나라가 어지러우면 하늘나라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다.

과거 바벨론 포로로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당했다. 오늘날 저 폭압자 김정은 처하의 북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물론 전파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나라를 잃으면 신앙의 자유도 민족의 생존도 찬란한 문화의 자랑도 다 사라진다. 제 더 잃은 국민은 온 세상이 외면하는 유랑민 신세가 된다. 오늘도 저 지중해를 건너 탈출 난민의 길을 가다 지중해 바다에 빠져죽어 가는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난민들의 모습을 보라! 내 조국이 혼란하고 위태롭게 되면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환영할 곳은 없다는 이 냉엄한 지구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실로 애국심이라곤 찾아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정황이다.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도대체 나라를 사랑하는 사책인지 자기의 사상을 사랑하는 사책인지 알 수 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저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가건물 시위는 하기하여 방지하면서도, 그 광장 한 끝에 드높은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는 국가보훈처의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과 시민 편의에 해롭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며 지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잠실 제 2롯데타워 꼭대기에

대형 태극기 모양을 달고 “통일로 내일로”라고 써 붙인 것이 광고물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철거하는 조치를 시작 했다.

서울시청 광장은 반인륜적 동성애자 축제 장소로 공공연히 허용하고 있다. 모 야당 유력 대선 후보란 사람은 서울 구의역 지하철 안전 분 수리를 하다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어 죽은 19세 청년의 죽음이 “제 2의 세월호 사태로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51.8 기법 행사장에서는 ‘민중항쟁가’라고 하는 “임의 행진곡”이란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야3당이 진야 무소속 까지 합치면 170석이 넘는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한 가운데, 국회를 열기가 무산게 되어 놓은 정책이란, 20대국회 중에 각종 청문회를 계속하겠다고 선포하고 정부가 결정한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을 급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치도 하겠다고 정부의 각종 경제 살리기 법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의 불안한 앞날이 어शल히 내다보이는 현실이다. 각정서른 국민들은 좌시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대한국민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나라를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만 행동이라도 애국심을 실현하자. 나라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자. 거리에 떨어져 어지럽게 활날리는 종이컵 하나라도 내가 먼저 주워 청소하자. 도의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나 사책을 보면 분연히 일어서서 이를 저지하자.

그러하여 그릇된 정신과 이념에 낄리는 무리들을 척결하고 이 나라를 정의와 자유와 신앙의 터전으로 지키는데 앞장서자.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자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처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 3:15,16)

복양기만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비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대)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잘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한국신학회 주최 ‘해외석학 초청신학강좌’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바이어하우스 박사(전 튀빙겐대학교 교수) … 이른바 ‘성의 다양성’ 이 인류사회와 교회에 미칠 해악 경고

우리 사회 일각과 정치권에서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 등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므로 성적인 타락과 가정해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분야에 정통한 해외 석학으로부터 그 위험성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특별강연회가 지난 2일(목)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렸다.

한국신학회(이사장 조용목 목사, 회장 정상운 박사) 주최 ‘제2회 해외석학 초청신학강좌’가 안양카이노스성전에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페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독일개신교교백공동체신학회 회장, 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신학회 회원과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열렸다.

목청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의 사회로 신학회 회장 정상운 박사(전 성결대 총장)의 개회사, 이은규 박사(전 안양대 총장)의 기도 이필운 안양시장의 축사에 이어 페터 바이어하우스 박사가 ‘젠더사상에 대한 저항(Widerstand der Gender-Ideologie!)’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페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창조의 정점인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반성(相反性) 가운데 서로 보완하도록 창조하셨고, 남녀의 부부적 결합과 여기서 형성되는 가정 안에서 종말까지 인류가 존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이다.”라고 강조하고, 동성애의 이론적 지지 기반인 젠더사상의 문제점과 젠더사상 주류화 움직임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기독교인들이 이 젠더사상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젠더사상”은 성 역할 형성에 결정적인 것은 타고나는 생물학적 기질이 아니라(후천적)교육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고, 남녀 양성의 구분과 역할,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녀의 위치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그 사상의 목표로서 이것이 오늘날 ‘성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결국로는 평등과 관용을 요구하지만 사상 자체는 극도로 배타적이어서 이런 형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 혐오자’로 비난받고 있으며 더욱 격정스러운 것은 부부와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경향들을 이른바



시대에 뒤진 낡아빠진 가부장적 전통에 묶인 것으로 최근 문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실제로 스위스의 일부 학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부모1, 부모2로 부르고, 스웨덴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로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과

성경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대하는 이 젠더사상이 부부와 가정, 집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자녀 양육 결정권을 박탈하고 있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구 문화의 근간을 잠식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과 순결의 가치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고 진리와 책임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의 개념이 상실되고 변질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계속 진행된다면 남녀의 본질에 따른 모든 구분 및 질서가 허체해 지금까지 질서정연하던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페터 박사는 또한 이러한 사상이 교회와 신학에 접목될 때 야기 될 성경왜곡과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과 예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심각한 악영향과 그 폐해를 말하면서 “일례로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차별대우 받는다’고 느껴지는 모든 표현에 대해 항법로 위협하는 이른바 증오법(hate laws)이 도입되어 성경적 창조질서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애초부터 이러한 법의 제정을 막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그러면서 젠더주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종말의 관점에서 다가오는 아노미아(무법상태, 마 24:12)를 말하는 성경적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고도 역설하였다.

신학회 회장 정상운 박사는 개회사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의 확산은 성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아득게 하며 성적 일탈을 조장해 도덕적 황폐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바른 성문화 계도와 정착이 필요한 이때에 귀한 강연을 해주신 페터 바이어하우스 박님과 강연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조용목 목사님과 은혜와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신교회

조용목 목사 초청 축복대성회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김인찬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청신교회 담임

| 일 시 | 2016년 7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신교회(담임 김인찬 목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80번길 16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지방회연합부흥성회

주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강사(14일 저녁)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강사(15일 저녁)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 15일(금) 저녁 7시 30분

| 장 소 | 아멘순복음교회(담임 임형순 목사)

경기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104, 031-543-4727

